



학문 경계 넘나드는 환경이론

환경철학 · 환경경제학 · 환경법의 최근 흐름

환경철학

자연 대 인간중심주의의 환경윤리 쟁점화

환경철학에 관한 최근의 논의 흐름

김명식 · 고려대 강사

환경은 이제 생소한 문제는 아니다. 특히 80년대 이후 열대우림의 파괴와 석유유출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오염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낳았다. 위기에 대한 자각은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의를 불가피하게 한다. 인구와 성장의 수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 소비가 아닌 검소에 기반한 질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 위기는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전례없는 풍요를 누리지만, 자연은 전례없는 파괴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위기 극복의 문제와는 별도로 현재 자연에 대한 착취에 기반한 인류의 풍요는 과연 정당한가 하는 도덕적 물음이 제기된다. 자연중심주의 대 인간중심주의라는 환경윤리 특유의 쟁점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다.

환경윤리의 초점은 생명

인간중심주의를 가장 치열하게 비판한 것은 동물해방론자들이다. 동물해방론의 대표자 피터 싱어(P. Singer)는 《실천윤리학》(황경식, 김성동역, 철학과 현실사)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들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냥과 육식에 반대하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의 환경윤리의 초점은 생명이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생명인 한에서 그것은 존중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은 자기의 생존과 성장, 번식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간의 용도와는 무관하게 자기 나름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철학자 네스(A. Naess)를 중심으로 한 근본생태론자들과 폴 테일러(P. Taylor) 등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입장에 속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말로 소개된 것은 없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생명에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김지하이다. 그는 《생명》, 《생명과 자치》(솔 출판사)에서, 우주론과 동양의 기(氣) 철학을 포괄하는 생명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고 정의하면서, 생명운동을 통해 죽음의 문명을 넘어서자고 역설한다.

하지만 생명주의 또는 자연중심주의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다. 그것들이 신비주의 경향과 아울러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한가지 이유이다. 이러한 비판의 대표자는 캐나다의 생태사상가인 메레이 북친(M. Bookchin)이다. 북친의 입장은 비판적 합리성을 중시하면서, 생태사회로의 변혁을 촉구하는 것인데, 그의 사상은 《에코필로소피》(구승회, 새길사)에서 소개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심미적 이해

또한 기존의 전통을 인간중심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무조건 버릴 것이 아니라, 전통속에 있는 자연에 대한 광범위한 사색을 이해함으로써, 환경위기의 극복의 단초를 발견하려는 시도도 있다.

유진 하그로브의 《환경윤리학》(김형철역, 철학과 현실사)은 이런 입장에서 서술된 저작이다. 하그로브는 자연을 경제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심미적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전통속에서, 자연에 대한 심미적 이해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한편 기술공학의 파괴성에 주목하는 것도 환경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향이다. 하이데거는 《기술과 전향》(이기상 옮김, 서광사)에서 현대기술의 특징을 '도발적인 탁달'로 표현한다. 즉 자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자연을 몰아부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또한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이진우 옮김, 서광사)도 주목할만한 책이다. 그는 기술공학의

발전이 따라 인간의 역할도 변했다고 강조한다. 이제 인간의 능력에 걸맞은 책임을, 존재 일반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고려대 교수인 임흥빈은 《기술문명과 철학》(문예출판사)에서 하이데거와 요나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존재론적 이해, 윤리학적 대안을 넘어, 생태적 사유가 그것에 걸맞는 사회정치적 기획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환경경제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향한 움직임

'환경경제'에 관한 최근의 연구흐름

신의순 · 연세대 교수 · 자원경제학

우리나라에 환경경제학이 도입된 역사는 10여년에 불과하다. 지난 60년대와 70년대의 고속성장기간 동안 환경오염은 필요악으로 간주되었고 성장속도를 지연시키는 환경투자는 사치라고 생각되었다. 물론 경제성장의 초기에도 공해산업의 국내유치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울산, 온산공단에서의 공해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제학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경제원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환경의 경제적 가치 평가

1981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자원경제학'이라는 과목이 개설된 이후 국내에서도 환경문제를 경제학의 독립된 분야로 나누기 시작하였다. 1988년 국내에서 최초로 발간된 자원, 환경경제 관련 종합서인 《자원경제학》(신의순 지음)에서 저자는 유한한 자연속에서 어떻게 인류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에 관한 경제학 이론과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였다.

이 책은 환경보전과 개발간의 선택을 위한 비용, 편익분석, 적정오염수준을 찾기 위한 경제적 분석, 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유인제도, 환경이 제공하는 각종 서

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시장부채차원의 가치평가방법 등도 소개한다. 환경가치의 경제적 가치추정은 적정오염수준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국민소득인 녹색 GNP의 추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1989년에는 성균관대학교의 오호성교수가 《자원·환경경제학》을 발간하였다. 1992년에는 부산수산대학교의 유동운교수가 《환경경제학》을 발간하였는데 여기에서는 환경문제를 고려한 산업연관분석, 환경과 국제무역 등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다루어졌다.

외국의 경우 1981년 버클리대학의 피셔교수가 《Resource and Environmental Economics》, 1984년에 티넨버그교수가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 Economics》 그리고 1990년에 피어스교수와 터너교수가 《Economics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를 발간하였다.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도 기본적으로 국내 관련 저작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최근 환경문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두권의 단행본이 국내에서 발간되었다. 성균

관대학교의 오호성교수가 지은 《환경과 경제의 조화: 녹색사회로 가는 지름길》에서는 환경문제의 원인이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여기에서는 환경자원의 가치 평가, 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유인 제도,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조화 등 환경경제학에서 보편적으로 다루는 주제 이외에 환경기술과 환경산업과 환경문제, 환경과 무역규제, 농림업과 환경문제를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이정전교수는 《녹색경제학》에서 그동안의 환경경제 관련 연구를 종합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금년 3월 21일에 발표된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환경복지구상》에서는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5대 원칙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두번째가 '환경과 경제의 통합' 원칙이다. 국정책임자가 환경정책구상에서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강조하고 녹색국민총생산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게 되기까지 국내에 몇몇 되지 않는 환경경제학 분야 선각자들의 연구와 정책제언이 큰 역할을 하였다.

환경과 경제의 통합

대학에 비해서는 늦게 출발하였지만 국책 및 민간연구소의 환경경제 관련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환경팀은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정책 및 계량경제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연구원의 산업환경팀은 국제적 환경협약이 국내산업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비롯해 환경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환경부 산하 기초연구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도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환경경제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상공회의소에서도 환경과 한국산업에 관련된 여러 종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민간연구소 중에서는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럭키금성경제연구소, 포철경영연구소 등이 비교적 활발한 환경경제 관련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간되는 환경경제학 관련 전문



환경이론은 학제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학술지는 한국자원경제학회가 년 2회 발간하는 '자원경제학회지'와 환경경제학회가 년 1회 발간하는 '환경경제연구'가 있다. 환경경제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활동은 앞으

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이론의 제시와 분석모형 개발은 경제학의 영역을 더욱 넓고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

환경법

척박한 풍토의 환경 법체계

환경법에 관한 최근의 저술 흐름

허남오·청와대 민정비서실 비서관

환경이 여러 분야에서 인구에 회자되는 것에 비해 정작 민주, 법치국가에서 환경문제를 이끌어갈 법분야는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행정법에서 분화된 '환경법'이란 개념이 일천한 이유도 있을 뿐더러 외국법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정립안된 때문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우리의 법제는 독일을 계승한 대륙법계가 전통적인 공법이론의 기초가 되어왔는데, 환경법은 현대 서구문명이 앞선 미국에서 시작된 범으로서 아직 우리의 풍토에서 확립된 법체계를 만들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대학에서 환경법 커리큘럼이 생긴 지가 얼마되지 않았고 환경법 교과서도 최근에야 나타나고 있다. (이기우/김종민/홍준형 등의 저자) 물론 그전에도 구연창의 《환경보전법론》(81)이 있었지만 일반화되지 못하였고, 다만 행정법 교과서에 환경행정법에 대한 별도의 장이 만들어지곤 했는데, 석중

현의 《일반행정법·하》(95)는 무려 1백여쪽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론상이 아닌 실제 필요에 의한 환경법 분야 저술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환경관련법령집》도 4권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또한 국회의 〈미국 각종 환경법〉(93) 〈일본의 각종 환경법〉(93)을 비롯해서 법무부의 〈집단소송의 법리〉(91), 〈환경법의 쟁점과 동향〉(92), 〈국제 환경법과 무역〉(95) 한국법제연구원의 〈환경영향 평가법 연구〉(94), 유럽연합의 〈환경법제와 상품이동〉(95), 대한상공회의소의 〈환경법규의 별칙규정 합리화 방안 연구〉(93), 〈환경규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94), 〈환경법규의 합리화 방안 연구〉(95)가 나와 있다. 〈환경(공해)판례의 연구〉(이상규, 93)와 《환경법학회 논문집》(사법연수원 제20기)도 실무상 도움이 되는 저서다.

새로운 저서에는 《국제환경법론》(이영

준, 95)이 있고, 《환경정의의 위하여》(토다 키요시, 96) 《환경의 법이념을 찾아서》(허남오, 96)를 꼽을 수 있다.

외국에서도 환경법 저서가 아직 미흡한 것은 마찬가지다. 판례상 환경권이 형성돼온 미국에서는 사안별 지역별 환경서가 활발히 출간되고 있다. 그밖에도 《환경법, 자원에서 재생까지》(캠첼몬 외, 93) 《환경법과 정책》(플래터 외, 92) 《자연자원 정책과 법》(맥도널 베이츠, 93)이 유명하다.

독일에서는 90년대에 들어 헌법상 환경권이 규정되었으나 환경법에 관한 연구 저서는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대표적으로 《환경법》(벤더, 스피라버서, 90)이 꼽힌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제에서 환경권이 발달돼온 관계로 《환경문제와 자치체》(助川信彦, 91) 등이 대표적이며 《환경법》(原田尚彦, 94)이 유명하다. 최근에는 《환경기본법을 고찰하며》(일본환경회의, 94) 《자연보호법과 전략》(山村恒年, 94)이 나와 있다.

환경문제가 단순히 운동이념을 넘어 환경권 보장,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을 목표로 하면서 삶의 질과 국제무역에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이제 환경법은 모든 환경분야를 이끌어가야 할 위치에 있다. 사법고시 과목으로 환경법이 채택되고(99년부터) WTO 체제가 확립된 이제 우리의 환경법 분야 저술은 너무 미흡한 상태다. 앞으로 환경법 분야에 있어 법해석과 법이론을 정립하고 판례가 정착돼가도록 많은 저서의 출간을 기대한다. ❖